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英帝國會議의 難關 —世界的關心莫大—

一

지난 十四日부터 倫敦에서는 英帝國會議가 開催中이다。英帝國會議는 一九三一年에 所謂英本國과 自治領과의 平等을 規定한 웨스트민스터憲章의 採擇後 처음 열리는 會合인바 英本國閣僚는 勿論이오 愛蘭自由國代表를 除한 加奈陀、南阿、濠洲、新西蘭의 各自治領首相、印度總督 其他 各植民地代表等三十餘名이 一堂에 모혀 大英帝國結合을 討議한다。그러느니 만치 이會合은 英帝國으로보아 重大한 意義를 가젓스니 지난 五月十二日의 新帝戴冠式을 뒤이어 이 會議를 開催한것은 這間의 消息을 엿볼수잇다。

二

英帝國會議는 極秘密裡에 進行하고잇스므로 議題조차 確知할수 업스나 傳하는바에 依하면 最近 顯著히 變化한 世界情勢에 應할만한 英帝國의 國防、外交、通商關係의 統一、確立及 憲法問題이라한다。即 英國이 傳統的 政策으로 삼고잇는 聯盟第一主義는 日本、獨逸、伊太利等의 脫退로 事實上 依據할수업게 되엇스니 現在 事實上 行하고잇는 英佛協力主義를 그대로 持續할가、萬一 民主主義빨락으로 獨伊等 파씨즘의 樞軸과 對立해나간다면 此等 軍備擴充國에 對한 國防은 如何한가、萬一 國防을 充實히 한다면 그것에 必要한 軍事費負擔은·如何히 分擔할가 하는 等의 國防、外交問題와 웨스트민스터憲章 採擇後의 關稅政策을 그대로 持續시킬것인가 或은 이것은 米國에서 主張하는 것과가티 一國과 一國間의 協力에 有利하나 世界關稅戰의主因이 되엇스니 統一的 關稅低下政策을 쓸것이냐하는等의 通商問題와 웨스트민스터憲章의 採擇後 英本國과 自治領의 地位가 平等하야 自治領이 協力치안을것을 宣言할때는 英帝國의 崩壞를 招來할지니 좀더 鞏固하게 結合할 方法은 업는가하는 憲法問題等이 그것이다。

三

그러므로 이 討議、決定은 如干、困難한바가 아니니 劈頭濠洲首相 라이온즈氏가 日米를 勸誘하야 太平洋不可侵條約案을 提言하얏스나 米國輿論이 沈默을 守하고잇는것을 본다든지、軍事費 分擔에 對하야 自治領이 負擔을 不肯한것이라든지、英本國이 戰爭을 宣言하드래도 自治領은 戰爭에 參加할 義務를 가지지 안는다 하는것이라든지 모다 이것을 證明하고잇다。特히 關稅的 帝國內統一問題가 生할 時에는 各自治領의 自主權을 侵害한다는 理由로 反對가 이러날것이 事實이니 通商問題도 그저 容易치 안흘것이며 더욱 憲法問題에 잇서서는 自治領이 英本國과 平等한 地位를 獲得하얏스니 더새로운 變革이 생기지 안흘것이다。

四

英帝國會議가 여거리 重大難局에 處해잇는것은 事實이며 英國이 廣大한 植民地를 英本國과 遠距離에 두엇스나 그 自治領이 모다 列強과 近接한때문에 本國으로부터의 支配가 困難할뿐더러 列強으로부터 攻擊에는 便하게되어잇다。그러므로 自治領은 自體로 國防을 해야하고 隣邦과 親善政策을 쓰지안흘수업다。그러므로 英本國과 分離關係는 맺지 안는다 하드라도 英本國과 敵對關係에 잇는 國家와도 敵對行動을 하랴안는다。이러하야 英本國과 自治領과의 難關을 어떠케 突破할가함에 英國政治家의 手腕을 볼만하다。

獨伊連衡에 對抗해 『巴里、倫敦樞軸』結成

英獨接近으로新로카르노案進展

『羅馬、伯林樞軸』安在乎

【英國十七日發同盟】英國皇帝조지六世의 戴冠式은 一九一一年六月의 先帝의 戴冠式同樣으로 世界大戰의 前夜를 彷彿케하는 國際情勢下에 擧行되엇는데 戴冠式을 機會로 英京에出馬한各國代表는 戴冠式舞臺裏에서 活潑하게 外交工作에 奔走한結果 相當한 成果를 어덧다한다 右工作에際하야 뽈드윈首相은挂冠도가까워젓스므로 너무深入치안코 後任으로擬하는 췜발렌藏相이 이든外相과함께 事實折衝에 當하엿는데 特히 佛國代表델보氏코르방大使와의 會見에依하야 英佛兩國政府間의 共同戰線으로 옥硬化되엿다하며『羅馬伯林樞軸』에對抗하야 『巴里倫敦樞軸』이結成되엇다고傳한다 佛國代表側의 情報에依하면 벨그라—드는 勿論 알소는『巴里倫敦樞軸』에기우러젓다한다 他方 獨逸國防相부롬베르그將軍의 活動으로 英佛獨三國間의 關係도相當히 好轉된模樣인데 特히 英獨兩國政府의接近에伴하야 新로카르노 體制案이 漸次具體化하는 機運에向하엿다고 豫想된다 그러나 이獨逸政府의 새로운 動向이羅馬伯林樞軸에對하야 果然如何한 影響을 與할는지는 目下問題이다 이는뭇솔리니 首相과 히틀러總統과의 會議이實現될는지그 如何에依하야大略推察되게되엿다

航空局長後任은 伊勢谷郵務局長?

【東京電話同盟】放送局入으로內定된片岡航空局長의 後任은 十六日兒玉遞相의 歸京을 기달리여 銓衡하야 來二十一日 遞信局長會議終了後 決定發令을 볼것인데 郵務局長伊勢谷次郎氏가 가장有力視되며 郵務局長後任에는 官房監察課長 手島榮氏가 決定되는것이아닌가觀測된다

地方長官會議서 外相訓示의要旨

【東京電話同盟】十七日地方長官會議에서의 佐藤外相訓示要旨는 如左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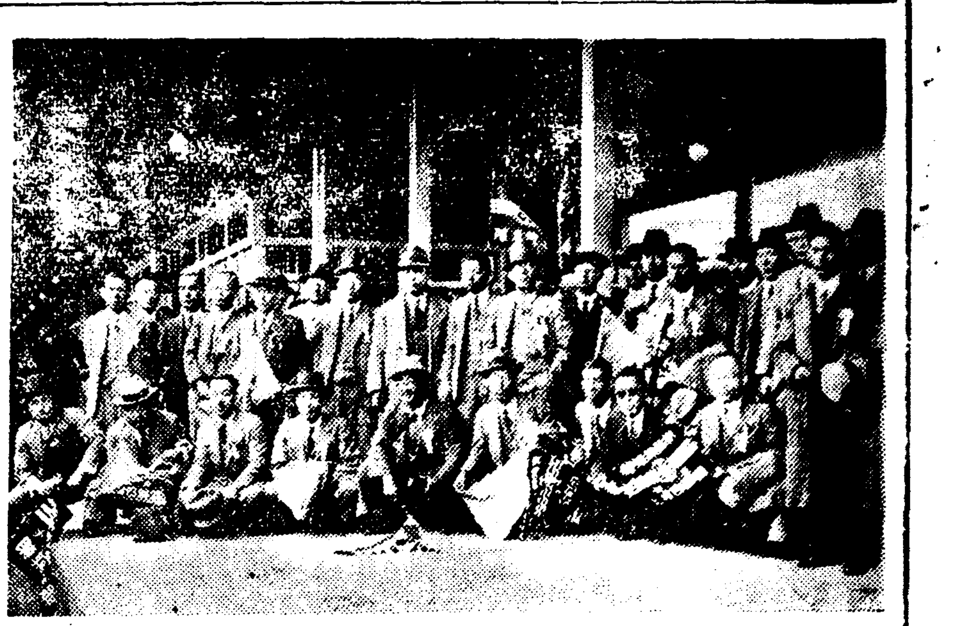
帝國政府의 根本 外交方針은 國際正義에 則하야 東亞安定과 萬邦共榮을 具現할려는 帝國의 國是에 準由하야 擧國一致의 外交政策을 遂行하고 國際關係를 調整하며 國運의 伸張을 圖코저함에잇다 世界情勢가 依然히 不安한 此時를 當하야 帝國의 國際的地位를向上시키고 特히 日滿兩國의 不可分關係를더욱 鞏固케하야 對蘇對中外交에對하야 그調整을圖함이 緊要하다고밋는다 그런데 日中關係는 遺憾이나 昨年來不詳事件이 續發하야 日中國交改善에必要한 諸懸案의 解決도 進捗되지못하는 狀態에잇다 近來中國에잇서서는 國家意識의 擡頭에伴하야 國民一致抗日이란 主張이 一種流行語가된 感이잇서 西南政權과가튼 反將의旗幟를 揭揚한者도 抗日을 標榜하고 最近의 西安事件에잇서서도 張學良은 對日即時開戰을 通電한狀態로 抗日은 中國內政의 工具로 利用하는者적지안흔데 一方南京政府에잇서서도 이中國民衆의 國家主義的運動을利用하고 外敵에當하기爲하야는 內爭을 中止하라고 高唱하며 自己政權의 擴大強化에努力하야 地方政權의 中央化 幣制改革에依한財政의再建 外國資本에依한 各種建設的事業의促進等 國民政府에잇서서 中國統一의方向에 一步一步前進케함은 할수업는 一事象이라 아니할수업다 中國의抗日的空氣는帝國이 中國에對하야 侵略的意圖를가젓다는誤解로부터 發生한듯한點도적지안타고 생각되는데 帝國政府로서는 如斯한생각은 全然업고 今後더욱 兩國의親善에努力하야 日中國交의 改善에 努力하려한다 또前記中國側의 形勢에 鑑하야 今後의方策으로서는 먼저 民間의 接觸을頻繁하게함으로써 兩國國民間의 感情融和를 圖하는 同時에 日中提携를主眼으로하는 文化的經濟的工作을 促進시켜서 日中大衆을基礎로한 兩國의緊密한 經濟的相互依存關係를 樹立하야서漸次兩國國交의 調整을圖하고저생각한다

蘇聯邦은 近來所謂第二次五個年計畫에依하야 輕工業의發達에注力하더니 明年부터는 새로 所謂第三次五個年計畫을樹立하야 工業의 繼續的發展과 國民文化의向上에 重點을設置하야 더욱國民經濟力의 充實을圖하는 同時에 이에 併行하야 軍備增強에 努力하는中이다 帝國에對하야 重要한關係를가진 極東蘇聯領의狀況을보매 同方面의軍備充實 各種軍需工業의 建設에 눈코뜰새이가업는 狀態이다 他方 蘇聯邦政府는 昨年十二月新憲法을 制定하고 所謂民主的諸制度를 公布하엿스나 昨年八月及 今年一月의所謂 反革命陰謀裁判事件等에 徵하더라도 蘇聯邦의內政은 相當히 複雜한듯하야 帝國政府는 兩國의不必要한 摩擦을可及的除去하는同時에 兩國間의懸案으로되여잇는 漁業條約問題 北樺太利權關係問題 滿蘇國境委員會의問題等 重要問題의 解決을 企圖하야서 兩國關係를 正常化하고저 努力하는 中이다

다음 日英의親善進展은 諸般對外關係上 極히 囑望하는바이나 아직 兩國間에 中國問題、通商問題等 幾多調整을 要할點이 相當히 만타 政府는目下 이打開에 努力하는中인데 多幸히도 昨年十月發生한 基隆事件及永年懸案이엿든 永代借地權問題도 最近解決되여 兩國間의空氣는 漸次로 融和되는中이다 今回 秩父宮同妃兩殿下의 御訪英에依하야 日英親善의具體가 더욱 促進된것은 同慶에不堪하는바이다

日米關係는 大概 目下平穩하다고 말하여도조타 但 通商關係에잇서서는 現在日本海外貿易進出에 伴하야 紛糾가 發生하엿스나 雙方이 立場을 서로諒解하야 漸次解決의 氣運에向하고잇스며 그結果가 最近米國綿業視察團의 來朝는 日米兩國當業者에對하야 滿足한協定을成立시켯는데 또繼續하야目下行하고잇는 經濟視察團의訪米는 이氣運을 一段助長할것이라 期待된다 元來日米兩國은 太平洋을中間에두고 相隣한經濟的으로 相互依存關係에잇스므로 이를基礎로하야 益益兩國의親善關係를增進하야서 太平洋의 平和維持에 深甚한協力을期할것이라 思한다

다시獨逸과의 關係는 昨年十一月日獨防共協定이 成立된 以來 帝國政府는 共産主義運動에 對하야 日本國土의 擁護及東亞의 恒久的平和確保의 見地로부터 確乎한方針을 堅持하며 第三인터내슈날 即 콤인테른이 日本、獨逸等을 公公然한 目標로 揭揚하고 國際的으로 極히 巧妙한手段에 依하야 赤化工作을 하고잇슴에 對하야 國際的防衛措置를 講究할 必要를 認定하고 我



東京大阪實業視察團一行=十七日午後四時二十三分京城驛到着光景

東京大阪實業家 視察團一行

東京、大阪有力實業家로 組織한 朝鮮視察團一行二十名은 十七日午後四時二十三分 京城着列車로 入京하얏는데 一行의氏名과 宿所는如左

▲乾卯兵衛氏(乾卯食料品株式會社社長)▲平井圭三郎氏(日本電報通信社)▲伊藤仙吉氏(日本廣告聯盟)▲西塚榮次郎氏(共進舍)▲東鄕義次郎氏(旭廣告株式會社社長)▲大久保誠吾氏(堀內商店)▲竹村幸次郎氏(竹村製劑所社長)▲谷新助氏(谷回春堂社長)▲短田二郎氏(山田安民藥房廣告部長)▲宇田蘭造氏(中山太陽堂廣告部長)▲宇野達之助氏(宇野達商店社長)▲野村外吉氏(野村商店社長)、▲有田逸夫氏(有田商會主人)▲佐藤安太郎氏(近江벨스取締役)—以上朝鮮호텔投宿 ▲伊藤重次郎氏(日本百貨店組合專務理事)▲井田友平氏(井田京榮堂社長)▲原鏡三郎氏(레온商會社長)▲石井衛太氏(電通營業局主事)▲玉谷高一氏(와까모도本舖)▲丹野泰氏(平尾商店廣告部長)▲谷口武雄氏(中外通信社社長)▲津村重孝氏(津村順天堂取締役)▲大木卓氏(大木合名會社副社長)▲久保仲進氏(久保商店廣告部長)▲黑崎雅雄氏(正路喜社取締役)▲藤井勝之助氏(藤井商店專務)▲北原鐵雄氏(아루스社社長)▲三田秀太郎氏(古醫學研究所社長)▲白川康三氏(資生堂廣告部長)▲淸水爾氏(日東美學販賣主任)—以上備前屋投宿

朝鮮語辭典完成論

辭典編纂爲하야 學、財를傾注하라

⑦ 崔鉉培

어 辭典의 完成을 今後 三年을 豫期하니、編纂費가 적어도 萬圓을 들 것이요、또 압으로 이어 印刷까지에는 다시 數萬圓의 資金이 必要할 것이다。그러나、이는 다만 이 貴重한 事業의 第一段落을 取得하기에 要하는 資金일따름이니、앞으로 나아가、第二、第三、第四、第五의 段落을 取하야、完全한 朝鮮語辭典을 大成하려면、巨額의 資金과 努力이 갈수록 더욱 必要할 것은 말할 것 없다。世上萬事가 단번에 完璧을 期하기 어려움은 우리의 다 아는바이어니와、特히 어 辭典編纂같은 것은 더욱 그러하야、그 完璧을 期하려면、不斷의 努力으로써 繼續的으로 修正하여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例하건대、佛蘭西의 翰林院編纂의 最新佛語辭典은 十七世紀 一六九〇年에 初版이 刊行되으로부터、十九世紀中에는 一七一八年、一七四〇年、一七六二年、一七九八年、四回를 亘하야 改正하엿고、十九世紀에 들어서는 一八三五年에 第六回、一八七八年에 第七回의 두번까지 再編纂을 行하엿고、一八八五年 十一月五日에는 다시 第八回의 編纂委員會를 열어、以來 滿四十九年을 經하야 一九三五年 九月五日에 겨우 完成되엇다 한다。英國의 大英百科辭典은 一七六八年에서 一七七一年에 初版이 刊行되엇는데 그初版은 단 二千六百餘頁의 적은 冊子이엇던 것이 堂堂한 大百科辭典이 되기는 그 再版以後부터인데、爾來 時代의 進步를 따라 繼續的으로 改版을 移行하여、世界的으로 그 聲價의 무거움이、大英帝國의 자랑하는 海軍力보다、크다。우리도 朝鮮의 文運의 久遠한 發達을 期하려면、朝鮮語辭典編纂도 남과같이 改修를 거듭하지 아니할수 없는것이니、그 事業을 爲한 資金의 必要가 어찌 數萬圓에 그치고 말리오。

그 뿐 아니라、우리에게는 普通辭典 以外에、歷史辭典、地名辭典、人名辭典、等 特殊辭典이 必要하며、또 훌륭한 百科辭典까지 必要하다。그러고 朝鮮語文및 朝鮮文化一般의 研究및普及의 機關으로서 季刊雜誌、月刊雜誌『朝鮮文化』(假稱)및『한글』의 刊行이 必要하며、다시 나아가서는 貴重한 朝鮮古文獻의 刊行이 必要하다。莫若 이러한 事業을 組織的으로 遂行하려면、그 資力과 人物의 所要됨이 莫大하다 할것이다。들으니、近者에 蒙古語辭典이 日本內地에서、刊行되엇는데、三卷一秩、價格이 九十圓이라 하며、滿洲語辭典이 方今 日本京都帝國大學에서 編纂中에 잇는데 今年여름에는 刊行되리라 한다。또 들으매、西洋사람들은 宣敎事業을 爲하야、世界가는 곳마다 土民語의 辭典을 編纂한다 한다。이와 같이、文化的 活動이 旺盛한 사람들은 自國의 言語를 整理한 餘力으로써、남의 言語까지 整理하여 更一層의、創造的 活動의 正路를 마련하는데、우리 朝鮮사람은 半萬年 文化民族으로서、아직 한卷의 辭典을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하엿스니、이것이 羞恥가 아니고 또 무엇이 羞恥이랴?

年前에 延專 某 先生에게로 佛蘭西 巴里大學의 東洋言語學科 某敎授로부터 조선말 말광(朝鮮語辭典)한 卷을 求送하여 달라는 편지가 왔다。이는 韓佛辭典、韓英辭典、等은 다 그네의 손으로부터 이미 所有한것인데、이제 다시 나아가 순조선말로 된 조선말 말광(辭典)을 求하는 것이다。讀者 여러분! 이 簡單한 請託의 편지를 延專 某先生이란 一個人이 받은줄로 생각하지 말지어다。이 편지는 여러분 自身——우리 조선사람에게 온 것이다。여러분은 이 편지의 답장을 무어이라고 써보낼 터인가? 참 기가 찰 일이 아닌가! 더구나 편지를 한 佛人은 곳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半世紀前에 우리 朝鮮語辭典(韓佛字典)을 最初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 준 그네들이 아닌가。본을 받은지 半世紀가 넘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아직 한卷의 辭典을 이뤄내지 못하고 따라 그네의 請求에 敷應하지 못하니 부끄러운 일이 아니한가?

그러나 물러가서 가만히 다시 생각하면 半萬年 文化民族으로서 아직도 한卷의 辭典을 이뤄가지지 못하엿음은 남들의 大辭典 完成에 比하여 비로소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남의 求함에 應하지 못하여서 비로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自身의 속에 깊이 들어 잇는 文化的 良心 民族的 義務心에 비추어서 스스로 부끄러운것이 아니면 안 된다。우로 先人의 恩惠를 갑지못함이 부끄러우며 아래로 後人의 期待에 어그러짐이 부끄러우니、이 自愧의 마음은 혼자 잇을 적에 고요히 생각할 적에 深夜에 잘줄려고 할적에 아마도 最後의 숨을 지을 적에 더욱 간절할것이 아닐까?

바라건대 온 조선의 學問잇는 사람 財力이 잇는 사람 文化人으로서의 良心이 잇는사람은 다함께 이일을 깊이생각해 볼지어다。(終)(一一、五、八)

政府의獨善信念 國民追從은疑問

政黨無視로依然政局不安

【東京電話同盟】總選擧後의 政界는 極히 複雜하야 政府가如何한態度로서 地方長官會議에 臨할지 자못注目되든바 林首相은그 訓示에서 現內閣이標榜하는 一時局認識을 極力強調하고 이로써 時艱克服을 爲하야 邁進하려고한다 政府는 牢固한 決意를 披瀝하야 國體의 本義를 明白히하고 妥當한 指導精神을 確立하고 緊要한것을 認하고 庶政一新各般에 國體眞姿를顯現하야 此等清新한 精神的基礎우에 國民生活의 安定國防充實의 諸方策을 講究하며 新設한企畫廳 各省各部門을 督勵하야 選擧法의 改正을 비롯하야 各種新政策을 來特別議會에 提案하며 國運伸張에 向하야 努力할方針이란旨를 述하고 中央地方이 一心同體로되여 相互提携하야國力의 綜合的發展에 全力을傾注할것을力說하엿는데 이는政府가 政黨의 挂冠要望을 默殺하고 時局收拾에進出함은 明瞭한바 이에 依하야 政局의 安定을 圖하고저 한것이다 그러나 果然이政府의 決意를 國民이支持할는지는 疑問인바 政府가如斯한 態度를闡明하더라도 政局은 依然不安을 免치못할것이다

001110

電氣料金引下 遞相이斷行言明

【東京電話同盟】兒玉遞相은 電力統制強化에對하야 國家管理案을 中心으로 協議를 進行하고 잇는旨 十七日長官會議및 遞信局長會議에서 그方針을 闡明하고 國家管理案과는 別個로 現行電氣事業法에依하야 電力料金引下를斷行할旨 遞相은同日兩會議에서言明하엿다는데 그內容은 다음과 갓다

一、現行電氣事業法은 今年十一月末로써 電力料金의更改를行하기로되엿슴으로 遞信省은各會社側의 更改料金認可申請을 기달리여嚴重한 査定을加하야 各社모도 料金引下를 行케한다

二、電力料金引下의程度에 對하야는 遞信省은 個個會社의營業成績에依하야 適正한 原價計算을行하고 이原價計算主義로써 引下의基準으로할方針인대 最高一割程度의 計算이다

三、引下는 一律的數字로서 算出함을 避하고 一般的으로보아 都市의 引下를 적게하고 郡部에 厚하게할豫定이다 그리고 會社의引下程度를 綜合하면 收入全體의 四分乃至五分에當할模樣이다

그런데 各社每年의 自然增收는 七分乃至八分이라고 觀測되여 遞信省側의 意圖하는 料金引下率과는 相當히相距가잇스나 遞信省으로서는 電氣事業의 公益性에鑑하야 相當히 強硬한態度로써 臨할方針이다 그리고 電力料金引下는 國營案의 成否와는 無關係로 實現될것이라한다

蔣介石氏 各將領과重要協議

【南京十七日發同盟】蔣介石氏는 十七日午後零時二十五分 南京着 곳軍官學校官邸에入하엿다 午後는 汪精衛氏와會見하고 밤에는 官邸에 于學忠、何柱國、馮玉祥、何應欽、陳誠、劉峙氏等을 招致 東北軍及楊虎城部隊의 改編移駐問題에關하야 協議最後的決定을 할터이다

埃及國聯加入을 特別總會서審議

【쥬네브十七日發同盟】國際聯盟에서는 埃及의聯盟加入을 審議하기爲하야 來二十六日 特別總會를열게되엿다 그런데 同總會에서는 이外에役員選擧委員의任命 常設國際司法裁判所判事의欠員選擧等도 行할터이다

스노덴氏逝去

【倫敦十五日發同盟】英國元藏相이오 元獨立勞働黨首領이던 필립·스노덴氏는 十五日午前四時 突然心臟麻痺로 사레萊달·포-드의自邸에서 逝去하엿다 享年七十二인데 前般來病氣靜養中이엿든바 昨今은 回復하야 十四日에는 自動車로 드라이브까지하엿스므로 突然한逝去는 意外라고한다

人事·集會

◀棟居新任拓務省管理局長 十三日午後四時十五分 ″아까쓰기″로京城驛發家族同伴赴任豫定

蔣介石氏南京으로

【上海十七日發同盟】上海에서病으로療養中이든 蔣介石氏는 十七日午前十一時半宋美齡夫人同伴으로 飛行機로南京으로向하엿다

總選違反件數二千

【東京電話同盟】全國道府縣警察部로부터 內務省警保局에 達한報告에依하면 十七日現在總選擧違反件數는 二千百二十六件 그人員은 四千三百九十八人으로서 그內譯은 가장 惡質犯罪인 買收利益誘導가 最高률을 占하야 四百七十八件 二千百九十三人 戶別訪問 個個面接이 四百九十七件 六百十五人에 達한다 또一方檢擧者中送局된者는 이미三十八名인데 그中當選者의違反은 十二 三名에達

夕刊後市況 十七日

◆橫濱 生絲 後引◆ 當限八二八〇 先限八〇九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八一三〇 先限 八一五〇

日本初有의金庫月賦販賣

自動開蓋器裝置付 盜難豫防王冠金庫

三個月拂月賦大賣出

手提金庫界의 大革命到來!

보라! 手提金庫界의 覇王!! 最高級鋼鐵製의 三十七年型最新品 十萬臺製造完了記念코저 五月限壹千臺만을、朝鮮、滿洲에 三個月拂月賦로提供한다

王冠印手提金庫 七大特長 專賣品

1、材料는總精選한特種鋼鐵板을使用하엿다
2、體裁는漆燒付六度塗로高尙優美하다
3、符號는暗號二個裝置의文字符合錠이잇다
4、蓋面은錢貨投入口의裝置가잇서至極便利하다
5、把手는規定의角度로긋치고蓋面이破損치안는新案裝置이다
6、蓋裏는書狀挾裝置가잇다
7、錠前은多年苦心研究한結果鍵外에嚴重한暗號六字合錠으로製作하엿스며誤錠이라하드래도安全하게使用할수잇다

月賦販賣法 (A號 拾五圓也 B號 拾二圓也)

(一) 三個月拂로한다 (二) 最初注文時 A號는七圓五十錢 B號는六圓前金을添付하야申込할것(振替或은小爲替로) (三) 殘金은注文한다음달부터二回로나누어서二個月로 每月十日內로送金할것 (四) 注文書에는住所、姓名、職業을明記하고捺印할것『金庫에貴社名或은商店名을書入하실이는金一圓을添加하야申込하여주시오』(五)代金引換注文은一切謝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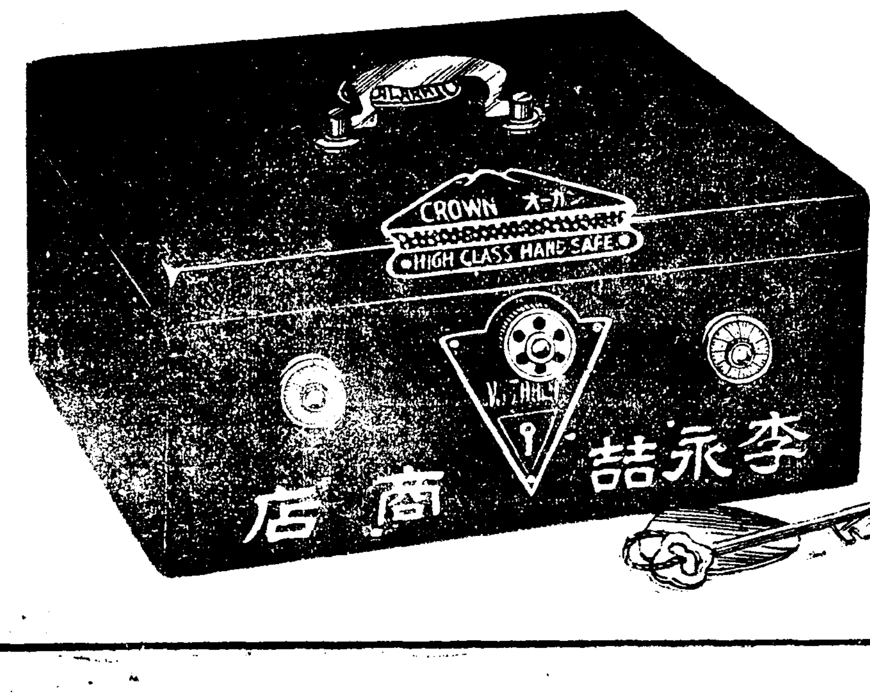
責任保證付

寸法	縱巾	橫巾	高サ	重量	準正價	大特價
漆燒付A號	一尺二寸	八寸五分	五寸	一貫六百匁	金三十圓	金十五圓也
同B號	一尺二寸	八寸五分	五寸	一貫五百匁	金廿五圓	金十二圓也

使用法

(1) 前部에잇는핸들을右로돌리면開蓋한다
(2) 暗號文字에맛치고各各指定文字에合한다
(3) 鍵穴左로돌리면열쇠가걸니고右로돌리면열린다
(4) 警鈴轉向裝置卽置STOP는 開蓋時만나고RING은 開蓋와移動할때는連續울린다
(5) ネジ卷器
(6) 金銀貨投入口

王冠印手提金庫製造元 クラウン工業所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丁目十六番地 振替東京三三五〇三番



凶作과 賊匪出沒로 東邊道飢饉深刻

그中에도 興京縣僻地에 尤甚

困境에 빠진 二萬同胞

【撫順서本社特派員洪鍾仁發電】 농촌에서의 만성화한 궁핍의발로로 조선의 춘궁과 아울러지금동면(冬眠)으로부터 잠이깨여신록이 욱어진 남만주 동변도(南滿洲東邊道)일대는 상당히심각한 기근상태에 빠저매우 우려되는바이다 봉천성공서(奉天省公署)에서도 일찍부터 그대책을세워 토목 공사를 이르켜궁민구제에 노력은 하야왓스나도저히 그런정도의 대책으로는그야말로 단순에 흩치는격으로직접구제의 손을뻐치지안흐면안되게 될현상임으로 십륙일 축내(管內)봉천령사관 경찰서장은 부하를데리고 무순에서드럭사십대에 량식을 만재하고 손소 실지를 조사하며 구제에착수하엿다 거이동변도일대가 기근에빠진 상태로 련삽년 흉년이 계속하고 비적이 자조나타나서 량식끈남은 극도에 빠저서 벼지로갈사록 초근목피(草根木皮)로 겨우련명을하야 얼굴에 피ㅅ기하나도업는더로 참으로 눈물업시는 볼수업는 현상이라고한다。 그중에서도 극심한 곳은 흥경현(興京縣)으로 서장일행의 구제대도 흥경에 나흘동안 머므를예정이라고한다 기근민의 수는상세치 안흐나 농촌전반이 모두궁한현상으로흥경현내만도 조선농민이 일만여명이고 그부근다른현에도 동수의 조선농민이 살고잇는데 그대부분이 만주인의 소작인으로 가난하기짝이업서 그전부가 기근민으로 세이게된다 구제는계속하야 실행하지안흐면 안될현상으로 당면의 중대문제가되여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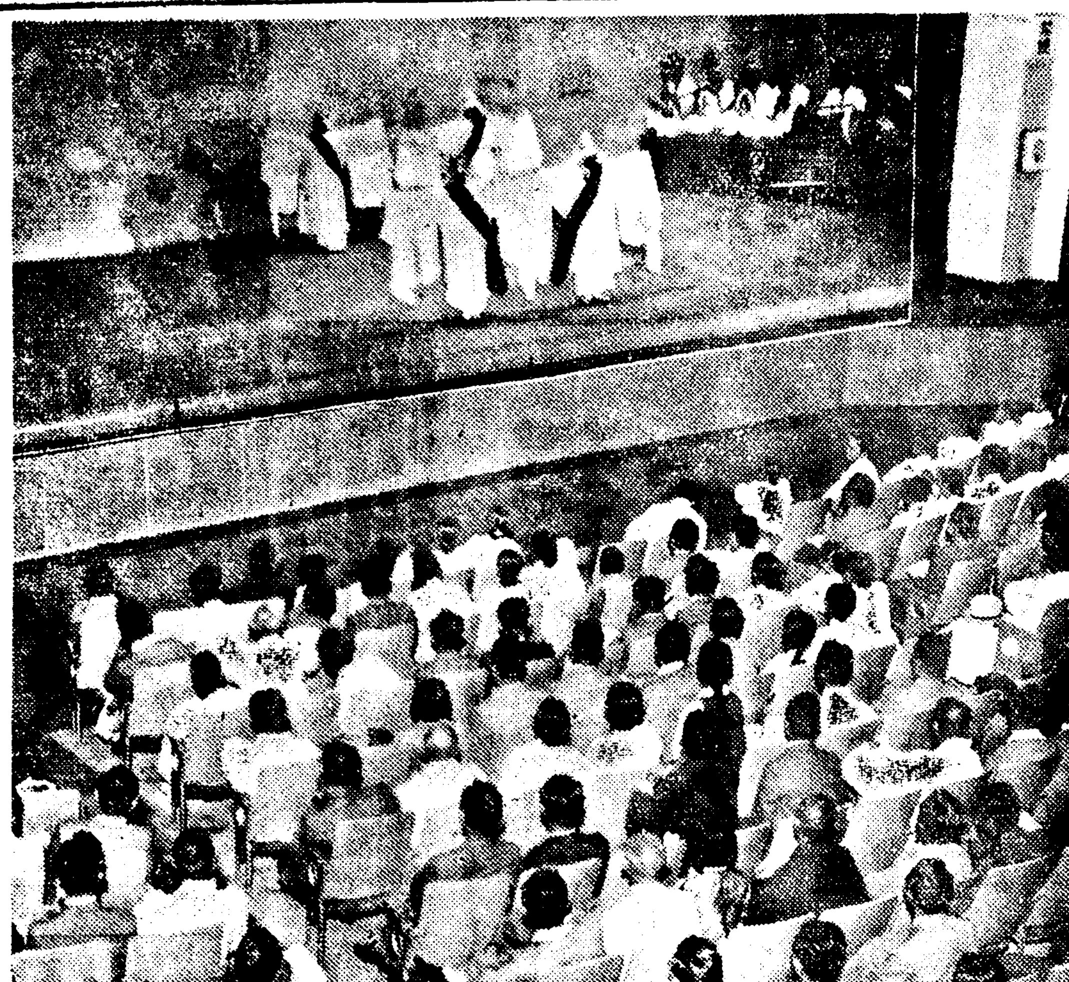
滿場을啞然케한 鄕土藝術의精華

超盛況인鄕土舞踊民謠大會

今夜로一日을延期

조선민속학회(朝鮮民俗學會)주최와 본사후원의제일회 조선향토무용민요대회(朝鮮鄕土舞踊民謠大會)는 드디어십칠일오후세시부터 시내부민관(府民館)에서그첫막을여럿다 시간이 주간(晝間)임에도불구하고 발서정각전부터 시내각남녀전문학교의 학생단체와 일반관객이 밀려들어장내는 대만원의성황을 이루엇다 오백년의 길고긴동안 전승되여오든 이보배롭고 아름답고 자미잇는봉산(鳳山)의 가면춤(假面舞)와 사자춤(獅子舞)의 연유와학술적자료가치며 그향토적예술의 극치인점등에잇서서는 이미루차본보에보도한바와 갓거니와처음막이열리자 꿈고아름다운 음악에 마추어 서무(序舞)—四上佐舞—가나오는데 색하얀 승복(僧服)에다 붉은띄를두른 네사람의 선녀가튼 무희가나와서 발과팔의률동으로 종교적색채가 가득찬 춤을 추게되자 관중은 과연망아(忘我)의 경지에들어가 막이내려갈때까지 숨도쉬지안는정도이다가 저윽히 춤이끗나자우뢰가튼 박수가 이러낫섯다 그다음 이봉산춤의 주총의지위에잇는 팔목무(八目舞)가 나왓는데와무(臥舞)립무(立舞)주무(走舞)가 차츰차츰 전개되여나종의 팔인의란무(亂舞)에 이르기까지에는 아연관중을 열광케하야 조선에도 이러한예술적무용이잇는것을 새삼스럽게 놀래느끼게 하엿다 그다음 로장무(老丈舞)취발무(醉發舞)사자무(獅子舞)량반무(兩班舞)거사사당무(居士社黨舞)옹구무(翁嫗舞)남강로인(南江老人)신장사와 원숭이들의 춤이모다 여지것우리가 보지못하던 아름답고자미잇는 세계에자랑해서 조곰도손색이업는 향토무용을 보혀주엇다 십칠일밤에도 초만원으로 제일회의공연을 마추엇다

그런데 이춤은 하로밤공연으로는 도저히 여러사람에게 만족을줄수업고 또좌석관계로 입장하지못한분도만헛고또인기는바야흐로노파 연기하라는 희망이 각방면으로부터 만어서 부득이하로밤을연기하기로하야 십팔일밤에도 오후일곱시반부터 가튼장소인부민관에서 공연하기로하엿다 그리하야 여간해서는 보기어려운 봉산탈춤을 서울장안에서도보도록 조흔기회를맨들게되엿다한다 (사진은 초서황의 봉산탈춤 제일야광경)



“우동집”放火犯에 二審도懲役八年

京城覆審에서言渡

주인집돈을 훔치고 그범죄을엄새기위하야 주인집에 불을논혐의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팔년판결을밧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여온 부내종로일정목 매발(梅鉢)우동집고용인 시야춘일(矢野春一)(二一)에관한 방화、절도피고사건언도공판은 십칠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적(荻)재판장주심、의전(依田)검사관여미테 열렷는데 재판장은 역시원심대로 징역팔년을 언도하엿다

機敏한車掌

鐵道事故未然防止

용감한차장의 기민한 처리로 위태한 열차사고를 미리방지한 이야기—십사일 오후여덟시십오분에 대전(大田)을 떠나 경성으로가든 제삼십륙렬차가 조치원역(鳥致院驛)에 이르럿슬지음에그렬차의 삼등객차의주행부(走行部)에서 이상한 소리가나므로차장 서한갑(徐漢甲)군이정거하는 동시에 조사한결과 그객차의 부레끼장치의 일부가부러저잇슴을 발견하고 곳수선하엿다 만약 그대로다음 정거장까지운전해갓드라면 큰사고를 내게되엿슬터인데그차장의 주밀한 주의로 미연에방지하게된것으로 철도국수리부에서도 칭찬이자자하다한다

“三重苦의聖女” 來京豫定變更

七月十三、四日頃에到着

“삼중고의성녀”(三重苦의聖女) “헬렌케라—”녀사의 조선방문은 래월이십삼일의 예정이엇스나 형편에의하야 칠월십삼일부산(釜山)상륙 경성도착은 십삼사일경으로 예정을 변경하엿다

上海民族××黨員 十名朝鮮內潛入

哈爾濱서逮捕된黃判武의自白으로

慶北警察部內査活動

【大邱】상해에 본거를둔 상해민족××당(上海民族××黨)에서는 기관지(機關紙)를인쇄발간하야 조선내에 배부한 사실이 잇섯음으로 경북경찰부는 사건을 극비밀에 부치고 경북도내에잇서 ××당과 련락을 취하는분자가 업는가하고 형사대는 각방면으로 내사중이든바 최근에잇서서는 돌연히 긴장한빗을 띄고경북도내의 요시찰인의 동정을 엄중히 감시중이라는데탐문한바에 의하면 상해민족××당원 황판무(黃判武)는 경북영일군일직면(慶北迎日郡一直面)출생으로 지난달초순에 할빈일본령사관에게 체포되여 방금엄중히 취조를 밧고잇다는데 황판무의 자백으로 말미아마 ××당원의 정체가 판명되는동시에 조선내에 다녀간 ××단원열명이 잠입한것도 판명되여 동령사관의 체포의 의뢰장에 의하야 방금 경북경찰부는 극력 들어서 내사중이라하나 아즉아무수확이업다고 한다 그러고 잠입된당원의 출신지는 경북일원안도인관계로 경북경찰부는더욱 긴장리에서활동을계속중이라한다

▲潛入××黨員

金炳圭(三〇)(慶北出生)
李一峰(二八)〃
金昌洙(三五)〃
朴永熙(二二)〃
張元化(三二)〃
韓光武(二六)〃
朴在鎭(三三)平安道
白一正(二五)〃
李備晉(二一)〃
金昌成(三〇)〃

不良輩에게마저 瀨死의重傷

靜岡視察온京城優良青年團

吉原署에서兩名檢擧

【吉原電話同盟】 십칠일오전령시반경 정강현부사군길원정(靜岡縣富士郡吉原町)고사려관(高砂旅館)에 숙박중인 경성부우량청년단원 내지견학 일행가운데 이삼명이 동정구경찰서엽플복 룽행중불량청년사사명이 수작을부침으로모르는척하엿드니 갑작히 면도칼가튼것을가지고 덤벼드러 일행중의 부내효자정(孝子町)청년단서기유영창(柳永昌)(二三)군은 목매를맛고옷을 벳겨 기타삼십여개소를 찔니여 빈사의 중상을입엇다 급보를바든 길원서원이 쪼처가 가해자로 부사군금천촌(今泉村)태전금웅(太田金雄)(二三) 동구보전충길(久保田忠吉)(二二)의두명을 체포하엿는데 연루자가잇는모양으로 지금검거를 진행하고잇다

第三回產業視察團員募集

本社 四大綱領의一條인『產業發展』을『모토』로하고 本社는 例年 全鮮商工層으로부터 代表的人士를募集網羅하야 產業視察團을 組織하고 벌서 兩次나 日本內地先進都市의 產業文物을 視察한바잇섯거니와 今年에는 第三回로 產業視察團을 募集함에잇서서 例年과는 그 코ー스를 바꾸어 百餘萬 우리同胞가 移住七十年來로 勤勤孜孜開發의血汗을 뿌리고잇는 滿洲大陸을 찾게되엿습니다 滿洲는 歷史的으로나 地理的으로나 우리朝鮮人과는 끈치못할 因緣을 가진곳으로事變以後 六年間 近代 資本에依한 高速度的으로 開發된 變貌는 爛熟期에들어간 日本內地의 產業界와는 別다른 意味로 參考될바 더욱클것을 期必하는바로 商工界諸彥의 奮然參加를 期待합니다

規定

一、視察地 安東、奉天、撫順、鞍山、營口、大連、旅順、新京、哈爾濱、吉林、龍井、延吉、圖們等 十三個所
一、期間 六月七日 京城出發 六月二十六日 歸京
一、團員 三十人
一、旅費 三百二十圓 (車二等、夜間旅行寢臺、旅館一流)
一、資格 商業家、事業會社幹部、工場經營者、農水產業者
一、起點 京城을 起點으로함
一、應募注意 (1) 五月三十一日까지 金壹百圓을添付하야 本社事業部로 申請하되 殘額은 出發前日까지 完納함을 要함 (2) 先納金은 如何한境遇라도 返還치아니함 (3) 期限前이라도定員에達할時는 參加申請을謝絕함

朝鮮日報社

千五百團體蹶起 街頭禁酒宣傳

六月十二、三日端午節期하야

基督勉勵會聯合會年中行事

매년 오월단오절이면 기독청년면려회 조선련합회 주최로조선、만주、일본내지에 산재한조선면려회원들이 총동원하야 금주 선전을시행하야왓거니와 금년단오에도 례년과가티 대대적으로 선전키로 되엿다는데 벌서부터 면려청년회 본부인 연합회본부에서는 그 준비에 분망중이라한다 이제당일 시행할 순서의 대량을 소개하면

一、금주선전기행렬(禁酒宣傳旗行列)一、분대로방선전(分隊路傍宣傳)一、선전광고판 포스타—선전삐라배부一、금주웅변대회一、도시농촌금주동맹조직一、금주례배一、주일학교금주례배一、가정방문一、호별선전一、부인금주강화회 등그밧게 여러가지 집회와 순서가 잇스리라고한다

면려회는 물론 다른단체라도 이운동에 참가하려하면 할수잇다하며 금주선전삐라는 면려회본부에서 수백만매를 준비하야전부무료배부한다고한다 송료 매천매 삼십륙전(철도편이면이십오전) 첨부하야 청구하는대로 당일 진행순서와 선전삐라를 보내기로 되엿다한다。

빈집에窃盜

십삼일 오후두시경 부내신당정(新堂町)사백십오번지의칠호 파정선일(阪井善一)(四七)의집 빈틈을타서 주소부정의 김옥환(金玉煥)(二七)이란 소년이 대담히도 뒤문열쇠를열고 들어가 귀금속삼백여원어치를 훔쳐가지고 도망하엿다 동대문서에서는 시내각서에 수배 범인을엄사중이다

長津江、滿浦線에 第二次移民、日間移送

清津築港에는六月上旬頃에

총독부내무국 알선으로 서북조선에보내는 로동자는 제일차로 서북조선 각공사장에 지난 사월말까지 팔천팔백명을 보내엇는데 장진강수력전기(長津江水電) 만포선(滿浦線) 청진축항(淸津築港)등 북조선지방의 신규공사에 오히려 칠천명의 로동자가 필요함으로 내무국에서는 제이차수송계획을 세워가지고 일간수송에 착수하기로되엇다 그리하야 현재결정한인원은 장진강수력전기에 사백명 만포선에 오백명 청진축항에 오백명으로 장진강과 만포선에는일간보내리이요 청진축항에는 류월상순경에 수송하기로되엇다

咸北에豚疫流行

함경북도(咸北)무산(茂山)회녕(會寧)온성(穩城)등세군에는 수삼일전부터 도야지전염병(豚疫)이발생하야 벌서삼십여두가 죽엇는데 이것이 전염만연될 징조가 보임으로 경무국위생과에서는도야지를 전부 격리식히는동시에 지급히 예방주사를 보내어 함경북도일대에잇는 도야지에 전부예방주사를 시행하도록 하얏는데 함북경찰부에서는 그병의 드러오경로를 엄중조사중이다

情郎에게旅費詐取

【木浦】 본적을목포부 욱정(木浦旭町)에둔 허련홍(許連紅)(二三)은수년전부터 만주간도성연길현 명월조천세루(滿洲間島省延吉縣明月村千歲樓)에 고용녀로잇는중동리 전성섭(全成燮)(二三)이와서로사랑하는 사이가되엿는데 올녀가 전차금은다갑고 본가에돌아와잇다가 전기전성섭에게 기어코 부부가되고저하니 려비를 보내달라고 하엿슴으로 려비사십원을보내주고 하로속히 오기를고대하엿스나 월여가지나도록 아모소식이업슴으로 목포서에련홍의수색원을 제출하엿다고한다

旅客事故五百二件中 死傷이百八件

鐵道局의昨年度集計

철도국에서는 소화십일년도(작년삼월부터 금년 삼월까지)일년동안에 조선안 각철도선렬차와 정거장과 철도국경영 뻐스에서 발생한 려객사고(旅客事故)건수를 요지음에 조사수집한 결과 승무원과 정거장순사와 역원(驛員)들의 엄밀한경계가 잇섯슴에도 불구하고 함게 오백이건이나되는 만흔수짜를 나타내엿는데 전년도보다 륙십칠건이 증가하엿다 그가운데서

▲도난(盜難)은 오십일건으로 전년도의 사십사건에비하야 십사건부럿스며

▲직무방해(職務妨害)는두건이고

▲부정승객(不正乘客)은 일백칠십구명이다

▲법정전염병(法定傳染病)은십일건으로 전년도의 칠건에비하야네건이 부럿스며

▲사상(死傷)은 일백팔건으로 전년도의 이백칠십이건에 비하야일백륙십사건이 감소하야 비교적조흔 성적을 나타내엿다 사고가 제일만히난곳은 려객렬차의 이백오십일건이고 제이위로는 정거장구내(構內)일백삼십륙건이며 그다음으로는 혼합렬차 화물렬차 기동차(汽動車) 자동차등의 순서이다

氣象特報

【十七日午後三時 京城測候所發表】 京畿道沿海는 南西風이强할것이다 海上에서는더욱强할것이다

千金喜雨

泰川 평북태천지방은 종한후로 한점의비도 내리지안코 동남풍만 매일가티 계속하여 파종한것이 거의고사(枯死)할사태에이르러 일반농가에서는일대공포에 싸엿든바지난십오일새벽부부 비가 계속하여 나림으로 일반농가에서는희색이만면하다고한다

伊川 강원도 이천지방에는 느진 봄가뭄이심하야 일반 농가에 적지안흔 우려를주더바 지난십오일부터 단비가나려 십미리구부의비가나렷스나 아직까지 풍족치는 못하고 다소간 해갈은 면하엿다고한다

新安州 안주지방 만일삭전에비를보고 아직까지 비를못보아농민들은 자못불안에싸여 념려가 막심하든중 지난십사일 오후부터 기온이나리며 검은구름과동남풍이불드니 십사일 오후구시부터 나리는 가랑비가 십오일 오후까지 파종에 적당하게나렷슴으로 농촌인심이 적이안정되엿다고한다

牙山地方도喜雨 【牙山】충남아산군 일대는 이십여일을 비가내리지아니하야 발금 발육되는 맥작(麥作)에영향이밋치게되여 일반농가에서는 극히 우려중이던바 지난십오일오전팔시부터 감우가 내리기시작하야 동일오후까지 세우가 계속함으로 모맥과 춘종에 흡족하지는 못하나다소해갈은될듯하다고한다

관로로—미싱
이것이야말로 國產의代表
참으로優秀
그것의 權化……
가다로구一號 大阪發賣
一郡一店 代理店募集

京城鐘路二丁目一七 朝鮮總代理店 楠商店 電話光二九六番

外科 肛門病科
醫學博士 朴昌薰
京城府樂園洞二三五
電話光一四五二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咸興
(營業案內贈呈)

金金有望한
軍手의製造
專屬製造家募集
十一年度高速度能率機
業者에對하야 資金의補助的 特別割引으로써 各面一名限하야 新規開業
豐國軍手京城營業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九十番地

銀河水 고무신
世界 運動靴
世界護謨工業合資會社
京城府新設町一三七番地
電話光③一八三七番 振替京城一七九〇四番
社長 元胤洙
專務 金景鎭

價格引上謹告

愛用者僉位의 恒常愛顧를하여주심을誠心으로써感謝하오며삼가人事를드리옵니다

惠澤을힘닙음으로써 레—도化粧料品의比類업는優秀性에對하야는 僉位의信賴를多蒙하와 全國到處에서絕大의賞讚을博하옵고날로날로激增하는 愛用者僉位로더부러 驚異的新記錄을 樹立하게되엿음을眞心으로 感謝하는바이옵니다

또 한僉位의周知하시는바와가티 諸物價가騰貴함을따라化粧品界에잇서서도 諸原料材料等이意外로騰貴하게되엿사옵니다 그러나弊社는僉位의 日常必需品이옴을考慮하와 只今까지 極力善處하엿사오나이以上더隱忍하게되면 도리혀製品의 優良向上에障害를주오며이러케되면 平素에愛顧하여 주시든것이몬일가두려워하야茲에不得已 最小限度로價格을 引上하기로 斷行을하게되엿습니다

昭和十二年五月十五日

レート化粧料本舖
株式會社 平尾贊平商店

京城版

苦學生갈돕會定總

시내통동정(通洞町)일백구십번지 고학생갈돕회에서는 오는이십일일오후네시 그회관에 제삼회정기총회를 열터인데 일반회원은물론일반인사들의 다수참석을바란다

稅金滯納의서름 五十六件公賣에

全部가二三坪小家屋

세상에는 돈이흔하다 세월이조타고 떠들고잇지마는 가난한사람들은 세금조차 제때에 못내게되여 몸둥이의지하고잇는 자기의주택을 경매당할 운명에이른 사람도만타 방금 경성부에서 세금체납으로 오는이십육일에 공매(公賣)에 부치기로 공고(公告)하고 잇는것은 가옥과 대지(垈地)와 전답등으로 합계 오십사건이나 되는데 모다네평다섯평 여섯평 되는것이 대부분이고 그가운데서 제일 평수가만타는것이 겨우 이십수평박게되지못하는 것뿐이다 이가운데서 결국대부분은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돈을꾸어서라도 공매기한전에 세금으로바치게될터이고 일부분이라도 얼마만해도 경매처분을 당하고말게되리라한다

初等校聯合大運動會

大會部署決定

當日의盛況을豫期

오는이십오일 오전아홉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 열릴 경성사립초등학교간친회(京城私立初等學校懇親會)주최와 본사후원의제오회 전경성사립초등학교련합대운동회(全京城私立初等學校聯合大運動會)는 이에 출장하는 삼십일개교의 남녀건아가 일만사천사백이십명에 달하야 공전의성황을 예기하고잇는데 주최측에서는 만반준비를 급급히하고잇스며 동대회의 부서(部署)를다음과가티 결정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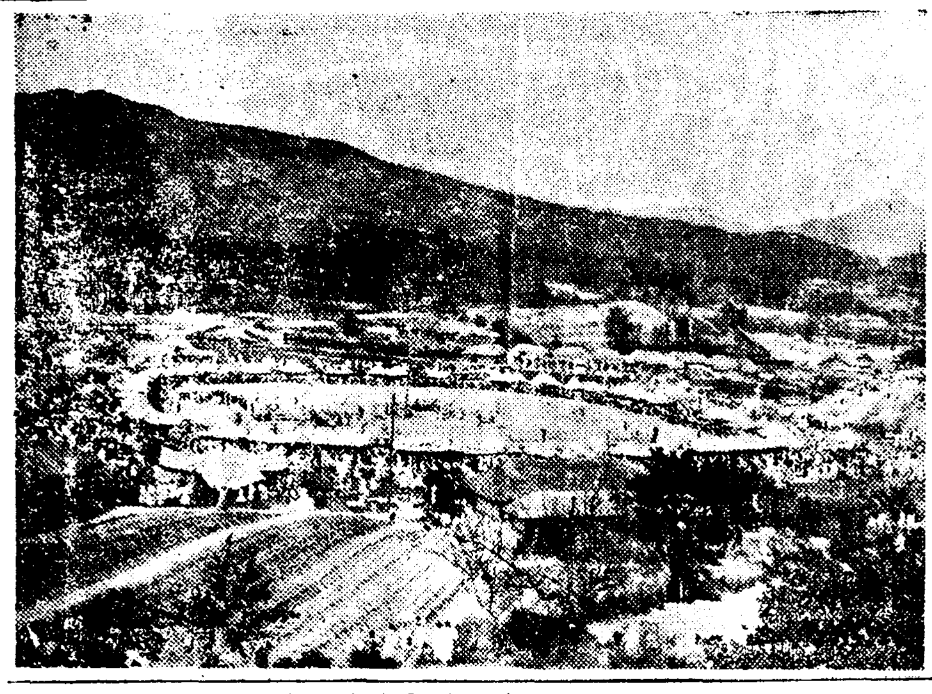
◇大會任員

▲會長 朴永祚(當番校加明學校校長) 劉永烈(當番校新明學校校長) ▲顧問 方應謨 柳本朝光 池谷耘兒 嶽山原天眞 兪鎭詡 ▲本部委員 朴治勳 李裕應 李晚九 閔潤植 金源榮 李璉 田敎駿 綃錫鳳 加古善廣 朴榮根 鄭鳳鉉 金文圭 大野史郞 元鳳洙 李源祥 金萬壽 洪範植 梁在昶 韓承源 權東淵 崔凡述 鄭一鎔 梁雨靄 李淑鍾 裕鑛九 白推德 任肯淳 松井角治 郭東宇 許乙康 鎭夏 白樂濬 高鳳柱 ▲進行 金昌漢 金翊鎭 ▲接待 崔熙淑 假野伊都子 張七淑 ▲救護 張樂準 金澤俊 ▲整理 辛成集 金正德 張大仁 宋兆燮 李成宰 金寶珣 柳在壽 任宅宰 ▲體操 劉瑞基 金翊鎭 韓龍得 ▲遊戲 金長壽 ▲競技召集 鄭鎭煥 安昌壽 ▲身長 安英洙 ▲出發 劉瑞基 金聖約 ▲監察 和久安行 韓昇淵 姜明浩 徐仁俊 ▲審判 李基煥 李基春 魯鍼學 李晶圭 徐在學 尹陽善 朴商駿 ▲計時 韓龍得 白南極 兪元根 ▲記錄 沈鍾薰 盧在億 秦春 ▲通告 鈴木榮太郞 金長壽

開城市民大運動會

盛況裡에終幕

快晴日氣에祝福바더



【開城】개성년중행사의 하나로 금년십칠회째 거행되는 시민대운동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십오일오만부민의 인기를 집중시켜가지고 공설"그라운드"에서 열리엿다。 개회첫각인 아홉시경에는 날세가흐리며 안개비까지 내려서 가슴을 조렷스나 『운동회는 그래도 하고만다』―는 놉흔 포축소리에 내리든비는멈추고 하늘을 덥든 구름은 "송악산"너머로 살아지고 말엇다 그리자기빨에 날뛰는 각단체의농악소리는 운동회장의 기분을 더욱 흥겨웁게하얏스며 몬지조차 일지안는 경기장을 바람가티 달리는 철각(鐵脚)남아의 기상은 과연 씩씩한 기상들을보힌 가운데 삼십여종의 경기가 무사히 진행되다가 오후 오시경에 막을 닷고말엇다 그런데 이날 출전한 각선수들의 전적은 다음과가다

【百米】▲一等李澤出 ▲二等金鎭業 ▲三等白上福 【二百米】▲一等吳亨燮 ▲二等柳邦燮 ▲三等朴承濬 【八百米】▲一等閔成基 ▲二等柳邦燮 ▲三等朴承濬 【一千五百米】閔成基 ▲二等韓萬壽 ▲三等張寅鳳 (走高跳)▲一等朴應秀 ▲二等文錫贊 ▲三等李澤出 (五千米)▲一等韓萬洙 ▲二等閔成基 ▲三等宋鍾燮 (自轉車三十週)▲一等滿月町青年團 ▲二等北本町青年團 ▲三 韓泰根 (마라손)▲一等李圭馥 ▲二等張春興 ▲三等李商伯 ▲四等李鐵甫 ▲五等李圭馥

(사진은 운동회전경)

出奔한女子

푸른입향기에 마음떠 집나간젊은여자들―

▲부내룡강정(龍江町)사백이십사번지에사는 정범성(鄭凡成)의 누이동생 정명화(鄭明花)(一八)는 전차금일백이십일원으로 부내원정(元町)이정목일백삼십번지 박순룡(朴順龍)의 음식점에 고용중 십륙일오후한시쯤 남대문통(南大門通)에잇는 권소칠(權召七)에게 가서 집금해오라고 보낸다는데 어데로인지 종적을감추고 드러오지안는다하며 전기 권(權)과 련애가깁허진 모양으로 사랑의도피행인모양이라고 ▲충남공주군금정(忠南公州郡錦町)사십이번지에 사는 신성률(辛成律)의(?) 대지정수(大池正水)(三二)는선산변전에 애원현북우화군(愛媛縣北宇和郡)에서 조전방차랑(潮田房次郞)의 셋재딸조전(潮田)리세자(二八)와 정식결혼을하고 지난사월사일에 고향에가리도라왓는데 겨우한달쯤되여 지난십이일 오후다섯시에 전기조전(潮田)리세자는 무단출가하야 경성방면에온 모양이라고 룡산서에 수사원이드러왓다

京城府學務課長 梁瀨氏가就任

경성부에는 종래에 학무과장은 내무과장이 겸임하여잇섯든데 십칠일부터 새로부임한 량뢰말태랑(梁瀨末太郞)리사관(理事官)이 학무과장겸사회과장으로 임명되엿다 그래서이번에는 사회과장자리가 비여잇는셈인데 사회과장은 주사(主事)급으로 보충하여도 무방하리라한다

一負五厘勞賃박다 犧牲된老人夫

仁川築港場內에慘事

【仁川】십륙일오후이시경 항정(港町)칠정목일번지 제이창고안에서 도산정(桃山町) 안래명(安來明)이가 약이십사관이나되는 "깨"부대를지고 발판으로나려오다가 실족하야 창고바닥에떠러지자 지고잇든짐이 두부를나리누르고떠러저서 즉석에서즉사하고말엇다는데 그는한집에 그날그날의 생활을이여가든가련한형편이엿다한다

京城版人事

▲林漢瓊氏(京畿道會議員當選人) 事次本報開城支局來訪 ▲徐昌濬氏(同上)

新區域住民發起로 普校增設을計畫

仁川初等敎育界朗報

【仁川】미취학아동 이천여명을 가지고잇는 인천초등 교육계는 항상우울을 면치못하엿스나 얼마전에 길전(吉田)씨의 송현보교와대화(大和)보교등 금년도에두개보통학교를 어게된것으로 얼마의 완화를보게되여 왓는바금번에는 신편입지내에서 또한가지전하야오는 명랑한 소식이잇스니 여는즉 송도(松島)근방의 주민이 궐기하야 보통학교기성회를 조직하얏는데 벌서 그준비위원이 선거되엿슬뿐아니라 기금이 이분일이상이 모집되여 이것이 여의히 진전되면 이학기부터 개교될뜻하다하야 일반의 갈망은 더욱크다한다

精米所煤煙으로 住民들이陳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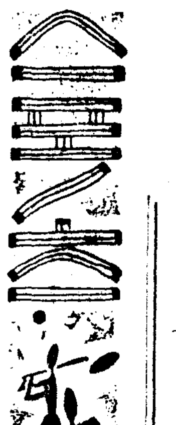
【仁川】물가폭등과 한가지각공장에서 연료와각종소모품에잇서서 절약을 다하고 잇는형편인대 부내 만석정(萬石町)에 잇는조선정미주식회사에서는 연료의등귀로 등겨를 석탄으로 대용하는관계로 매연이 심히 날리며 부근주민의 주택내로달려와서음식물 기타세탁물에까지 밋치여 도저히 그불결한폐해를 참을도리가 업슴으로 그정미소의연통을 좀놉히하여주든지또는 연료를제한하야주든지 하야달나는진정서가제출되야 인천서보안계에서는 이를철저히 조사한후 전기와가튼폐단이 업도록 하게하리라한다

仁川府內에 癩患者가盛行

衛生係도處置에困難

【仁川】작금인천부내에는 행색이서투른걸인군이 간간히눈에 보여 그중에는 거개경남(慶南)지방으로부터 류랑하야온 문둥병자가 석기여잇서 별별풍설이 돌고잇슬뿐아니라 부민간에 적지안흔불안을 늦기게하고잇는대 이에대한 처치방법을 인천서에서도머리를알코잇다한다

東光拳鬪俱主催의 國際拳鬪戰



來廿三日 京城運動場

東光拳鬪俱樂部主催의 國際拳鬪戰은 來二十三日 午後三時부터 京城運動場 特設링에서 擧行할터이라는데 이날의 出戰멤버―는"따볼·메인에벤트"에 伊太利人키드·로바―드選手와 適哲君의 復讎戰과 中部日本 웰터―級의霸者 佐藤鐵介選手對松本義城의 八回戰을 行하기로되여 人氣는 자못 놉하저 잇스며 『오픈·게임』으로 六回戰二組와 四回戰二組가잇다 入場料는 特히 大衆料金으로 링사이드一圓 普通席이 五十錢이라한다

開城卓球팀 青森市遠征

日本卓球會主催의 第六回全日本都市對抗卓球大會는 來二十二、三兩日間青森市에서 擧行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이大會에出場할 朝鮮都市代表開城府팀은 監督朴永祚氏引率아래 文錫瓚(主將) 崔根善 洪性祐 印在德等四選手가 十六日午前十一時三十九分 開城驛發列車로 出征하얏는데 途中下關과 大阪에서一泊한後 戰地青森市에 到着하기로되엿는데 一行은 二十九日午後零時三十五分 開城驛着列車로歸還할 豫定이라고한다

朴君卓球優勝

周鐸洪君惜敗

朝鮮學生卓球聯盟主催의 第十五回 全朝鮮學生卓球個人戰決勝은 十七日午後六時十分부터 大豫卓球場에서 繼續擧行되엿는데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大豫朴鍾植君이 普專周鐸洪君을 三對零으로 이겨 優勝하엿다

◇決勝戰 朴鍾植(大豫)3…0周鐸洪(普專)

女子卓球大會

參加申請은明日限

朝鮮女子體育奬勵會主催와 本社後援의 第五回全朝鮮女子卓球大會는 來二十二日午後一時부터 鐘路中央基督青年會館에서 擧行할터이라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同大會의申請期는 明十九日로迫頭하엿다 이날은우리女性卓球界의精銳들이 總動員될터임으로當日의熱戰은一層緊張될터인바 아직申請치못한選手는 十九日內로 京城府光化門通一四八同會事務所에 住所、氏名、所屬團體를明記하야 申請하기를바란다 (參加金不要)

實業卓球

朝鮮卓球協會主催의 第十一回全朝鮮實業團對抗卓球大會는 十六日前十時부터大學卓球俱樂部室에서열린바 團體戰에는 大學卓球俱樂部팀이 三對二로 總督府A팀을 이겨連二年優勝하엿스며 個人戰에는 總督府早瀨君이 優勝하엿다

◇團體戰決勝 大學俱樂部3…2總督府A

◇個人戰(準決勝) 早瀨(總府)3…1金相赫(鋼林) 朴在籠(總府)3…2庄司(大學)

◇決勝戰 早瀨(總府)3…0朴在籠(總府)

今日의運動

▲軟式野球=京城銀行團軟式野球聯盟主催의 春季리―그第一日 商銀對貯銀 午後五時 京城球場(觀覽無料)

實業庭球最終日

專賣軍快勝

對遞信局戰에

京城實業庭球聯盟主催 春季庭球리―그最終日의 專賣局對遞信局組戰은 十七日午後四時五十分부터 朝銀『코―트』에서 擧行된바 專賣軍이 快勝하엿다 이로써 第一次리―그豫選戰은終幕되엿는데 殖銀과 專賣局이六戰五勝一敗의 同率로 首位를占하고 四勝二敗의 總督府가 第三位를 차지하야 前記三팀의對抗리―그決勝戰은 明十九日午後四時五十分부터 朝銀『코―트』에서 殖銀對專賣戰으로 戰端이열릴터이다

【專賣】勝 【遞信】

(第三라운드)

○黃基成 淺野 4…0 小川 大友 ×

(第四라운드)

○黃基成 淺野 4…1 朴鍾華 孫觀星 ×

(以上十六日의 未畢組戰)

實業庭球豫選總計

順位		專賣	總府	殖銀	府廳	遞信	朝鐵	商銀	比率
1	專賣	：	○	●	○	○	○	○	0·800
2	總府	●	：	○	●	○	○	○	0·833
1	殖銀	○	●	：	○	○	○	○	0·833
3	府廳	●	○	●	：	●	○	○	0·500
4	遞信	●	●	●	○	：	●	○	0·333
5	朝鐵	●	●	●	●	○	：	●	0·166
5	商銀	●	●	●	●	●	○	：	0·166

【備考】○印은勝、●印은敗

慶應4 東大3

【東京電話同盟】慶應對東大第二回野球戰은 十六日午後三時五分부터 藤田(球)、辻、長濱、西村(壘) 四氏審判下에 東大先攻으로 開始된바 結局四A對三으로慶應再勝

東大 000000003―3
慶應 000300001―4A

副島伯紐育到着

【紐育十六日發同盟】國際오림픽委員會에 日本代表로 出席하는 副島道正伯은 十六日午前十一時三十分에 桑港으로부터 紐育에到着하야 곳宿舍인『빌트모어·호텔』로 드러갓는바 副島伯은 來二十日紐育出帆의『벨가리―카』號에 乘船한後 歐羅巴로 向할터인데 同日午後二時『호텔』에서 新聞記者團과 會見하고 其席上에서 一九四〇年東京大會에對한準備에 關하야 다음과가티 말한바잇섯다 『日本은 一九三六年의 伯林大會와가튼 大施設의 흉내는 내지안흘터이나 一九三二年의 羅府大會를 模範삼어 東洋的色彩를 濃厚하게 하고십다 大會까지에『테레비존』의設備도 充分히 될것임으로 大會의 實況을 全世界에 放送할수잇슬것이다』 그리고 副島伯은 十七日米國을 떠나 委員會役員等과도 會見하고 또十八日에는『엔·삐·씨―』放送局으로부터 全米에 東京大會의 準備狀況을 詳細히 說明하기로 되엿는데 이放送은 短波에依하야 日本에도 中繼放送될터이라한다

가려웁고 쑤시는듯압흔 皮膚病에 꼭쓰지아니하면 아니될

專賣特許 무도― 六一〇ハップ

皮膚病으로 근질근질가려웁고 쑤시는듯압흐며 진물이흐르는것은 무서운 絲狀黴菌과寄生虫이 皮膚의深部에侵息하야 血管과神經의組織을 浸犯함으로 此病菌을 殺滅치안흐면 決코 皮膚病을 根治할수업는것이다

六一〇ハップ는 웨잘듯는가

六一〇ハップ는 硏究에硏究를거듭하야 近代化學의 精技를다한 日本唯一의專賣特許最高權威의 貴重한藥으로서 皮膚의深部에 쏙쏙드러가 强力的殺菌作用을 發揮하야 이執拗頑固한病菌을 撲滅함으로 어떠한 몹시 가렵고 압흔것도 今時에 놀날만한效果를보는것이 이藥의特徵으로 治療가 速하고 的確한것은 한번써본분은 누구나이것을 效力잇고 世上에稀貴한藥이라고 激賞한다

옴、무좀、습진、옴낭습진가는 皮膚病으로 괴로워하는분은

明日을바라지말고 至今곳試用하시오

◎每日洗手할때 六一〇ハップ를 一二三滴쓰면은 皮膚의肌理가업서지고 주름도업서저 깍근듯이 艶艶한 어엽분 얼골이된다。 벼룩、빈대等에刺傷에도卽效가잇다

◎치운겨울날에도 六一〇ハップ湯에 沐浴을하면 身體에溫氣가잇서 언제까지든지 爽快한溫泉氣分에빠저 身體는 漸漸健康해지고 또感氣豫防도되며 不過僅少한 費用으로 一家團合하야 滋味잇게 지날수잇다。(詳細는說明書를보시라)

▲六一〇ハップ의主治効能

皮膚病、冷症、婦人病、神經痛、胃腸病、動脈硬化、痔疾、凍傷

醫界의泰斗

婦人科 川地醫學博士御推奬
皮膚科 長谷川醫學博士御推奬
內科 鍋瀨醫學博士御推奬
小兒科 森醫學博士御推奬

藥價 三十五錢。一圓。二圓三十錢。三圓五十錢。六圓。

(六一〇ハップ는各藥店에잇슴)

發賣元 名古屋市 武藤鉦合名會社藥品部

日·英·米·獨·佛特許 器械鍼療法

奧村療法 朝鮮学院

◎◎◎ 實地講習科 通信講習科 速成講習科

學則開業文獻送呈(郵劵四錢要) 每月五日開講

◎所在地=京城府大和町三丁目五五番地 ◎本院 大阪市西區江戶堀下通五丁目 電話 土佐堀 三八四三番

◇特典=修了者全國無驗定開業ヲ得

문둥병

○로數年間苦生하는사람은非常에 昔傳來의皇漢家傳藥이잇스니 服用하고저希望하는사람은便紙로注文하라 病理說明과 數多服用者의全快感謝狀添付無代送呈한다

大阪市新川三丁目 大福堂

安川コロダイン

胃痛腹痛에 卓効잇는

適應症 胃痛、腹痛、食傷、胃痙攣 下痢、消化不良、酒酔、船酔

定價 一瓶 卅錢、五十錢 一圓

發賣元 本舖 安川見榮堂 東京市麴町區永田町二丁目 電話銀座三六一〇一番

家庭用 キンカトール 芳香強力殺虫液 稲印のとり粉本舗

軍手의副業

軍手製造家募集

말삼할것도업시軍手는季節업는實用品으로販路는世界的으로漸漸擴大하야 前途洋洋한것으로一般은何日이든지大不足인데只今과가튼使用키不便한不便한能率이低한舊式製造機로하고잇던것은製品도맛처대지못하고 또한利益이되는바 이機械가제作되기까지 勞力을하여 …

한能率이놉흔 또 能키수운自動軍手製造機의專賣特許의 大發明을完成하야 이것을專屬製造家에提供합니다 本機械는何人이라도非常히使用키쉽고能率百倍로本業이나副業이나…

申込所 福積編物工業朝鮮營業所 京城府鍾路六丁目初橋東 本社 大阪市北區岩井町二丁目 電話光化門二三四番

(非賣品) 生○器弱小 改造法

ビール博士 副見申込所 東京中野區城山町三六 東京真空療法研究所

無代進呈

懸賞募集

入選發表

一等 百圓 一名
二等 五十圓 二名
三等 十圓 五名
佳作 二十名

一等入選作はコロムビアレコード二九三五五に吹込ます

「母を讃へる歌」募集은各方面에서熱讚을바덧스며 應募總數는實로一萬五千餘篇에達하엿슴은感謝不己한바이며應募者各位에게紙上으로깁히깁히謝禮하는바이옵니다

母を讃へる歌

森永ミルクキヤラメル

矢野テント

大阪市西区日吉橋北 矢野テント商會

파파인酵素應用藥用크―레무

アモンパパヤ

見本만으로도効果가좃슴을알수잇서서大評判

專賣特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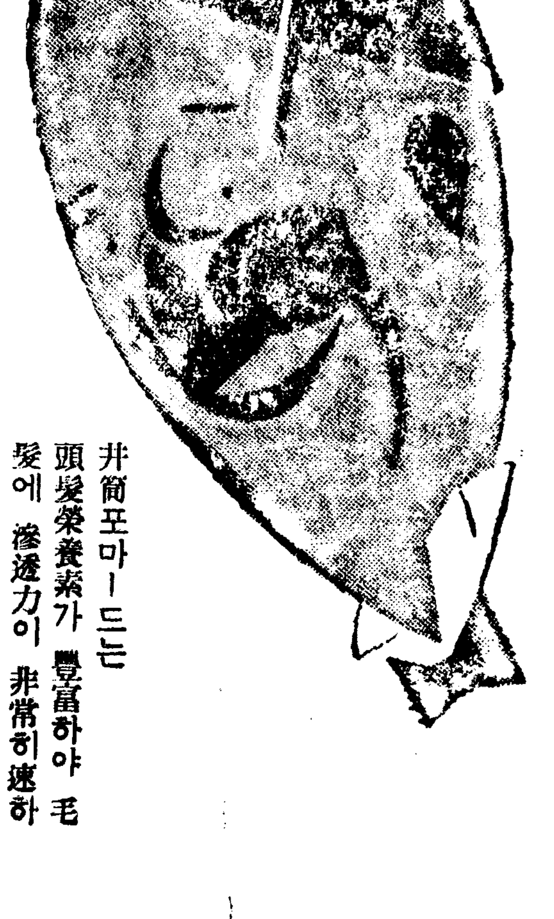
여드름 죽은깨 기미업샘

モンパパヤ洗粉

効果가조흘가?

東京神田松住町 株式會社 丸田商店

植物性 井筒ポマード 포마―드



井筒포마―드는 頭髮榮養素가 豐富하야 毛髮에 滲透力이 非常히速하고 洗髮에도잘씻겨지며 芳香이優雅함은 近代人의 好調에合致

定價 ¥1·00 ¥0·50 ¥0·30

京都·井筒·本舖

本社主催 広告講座 (一)

第一講座 經濟上、文化上 廣告의使命!

日本百貨店商業組合專務理事 딱터·오브·필로소피 伊藤重治郎

廣告라면 아즉도 誇張廣勢가튼 觀念이업지안홀만콤 우리의商工業界는 進步的思想이 不足한感이 不無하다 가튼곳에서 남의宣傳에뒤저가면서 姑息的方法으로 어찌 競爭해갈수잇슬가?果然 우리는 實勢를實勢대로 或은 그以上으로 宣傳하고잇는가?廣告에對한 一般的認識을 새롭게하는同時 朝鮮의現勢에잇서 남에게 떠러짐이업시 가튼步調로 盛運을마지하게하기爲하야 本社에서는 劃時期的으로 이번에廣告講座를 열기로하야 十六日午後一時와 午後七時의 二回에至하야 本社大講堂에서 東京、大阪의 斯界權威者四氏를 招講하야 盛況裡에 廣告講座를 열엇섯는바 直接으로 聽講지못한분을 爲하야 그講座內容을 速記하야 今日부터 連載하는바이다。

伊藤重治郎氏

이번 朝鮮日報社의 主催에 參加하야 廣告에關한 말슴을 드리어 여러분과 만날機會를 어덧슴은 나의 非常한 깁븜으로생각하는바이다 朝鮮에오니 京城 其他振興氣分에 불타 非常히 元氣가잇다 日本內地에잇는 사람이와서 여러분에게 參考가될만한것을 말슴드릴수는업다 오히려 여러분에게서 말슴을 듯고도하지 안호면안되겟다고 切實히 늣기어진다 그러나 온以上 어떠것이든지 말슴드리어 責任을免하려고 생각하므로 暫時 드러주시기바란다

나의말은 廣告가 經濟上과 文化上에 어떠한 役割을하는가 하는것으로 最初에 經濟方面에잇서서의 廣告力에 對하야 述하고 다음에 社會文化에잇서서의 廣告力에對하야 解說을 試하려고생각한다

爲先 人間의 需要가잇서야 비로소 經濟가 營爲되나다 人間自體가 欲望치안코 아무것도 사주지안는限 生產이잇슬理가업는것으로 生產、交換모다 人間이 物品을 欲望하기 때문에 이러나는것이다 이에 廣告의 根本이잇다 人間의需要가 如何히 움지기나하는點부터 말하고저한다 廣告는需要를 創造한다 創造하는것은 極히 困難한것으로 神이아니면 할수업는것이다 어떤學者에依하면 廣告는 決코 업는것을 만드는것은 아니다 잇는것을 單只 呼覺할뿐이라고 말하는者도 相當히잇스나 나는 그 廣은 相當히 힘잇게 廣告가 神과가튼힘으로 無에서 有를 生케한다고말하려고 한다

그一의 說明으로 이러한 例가잇다 어떤곳에서 "Readers Southworthsnewstoryinthe ledger."라는 八文字의 廣告를 紐育의 헤랄드紙에 내어달라는 申込을하고 그는一行으로 하야달라는 原稿이엇섯다 그런데 그原稿의 書法이 납버다고보이어 新聞社에서는 『一行』을『一頁』로 읽엇다 따라 一行으로 생각한 廣告主가 一頁으로되어 낫다 廣告主側에서는 廣告가 난것을보고 대단히 놀내어 어떠케 이莫大한 廣告代金을 支拂할가하고 새파랏케 질리어 곳 헤랄드社로 가서 그事情을 말하야스나 벌서 낫스므로 할수업는 일이다 一頁全部는 注文을 一行으로한것이면 翌日 一頁로 내면되나 설마 一頁로낸 廣告를 翌日訂正을내어저게 『昨日의 廣告는一行의誤』라고 辨明하야 쓸데업다 자 큰일낫다 어떠케 할수가업다 "Lodge"라는것은필라델피아의 新聞이다 하는수업시 廣告主는돌이죽어 도라가보죽 놀낼일은自己新聞社에는 注文이殺到하야잇섯다 『나에게도그新聞을보내라』『나에게도보와다고』라는터로 先分으로 四面八方에서注文이와서 一日中에 一頁의廣告代를 支拂할만한申込이잇섯슬뿐아니라 忽然中에 큰부자가되엇다

이는 大體무엇인가 잘못하야큰廣告가 나기때문에 非常한 需要가이러난것이다 卽이는업는需要를 造出하는것이아니고 무엇이냐 이만치嚴格한 現實的證據는업다。

또 日本內地에서 圓本이流行한 時代가잇다 或은 여러분中에도 多少 記憶이 잇는분이잇슬지도 모른다 數年前 最初에 나온것이『現代日本文學全集』이라는 小說類의全集이엇다 그때까지는 적어도 書籍이라면 二圓、三圓이 單價이엇섯는데 이때 처음으로 一圓이 單位로되고 또 그中에는 모든 小說이 거이 全部 網羅되어 잇슴으로 天下의 人士는 어로 向하야殺到하얏다 이에 繼續하야 나온것이『世界文學全集』이다 어때에 大體 얼마나 읽키웟는가 그數는 實로 큰바가잇다 書籍은 爲先 普通것이면 千이나 二千가량으로 一萬이나 읽키우면 冊肆에서는 倉庫가 서고 著者는 집어선다『現代日本文學全集』은 얼마나 팔리엇는가하면 들은바에 依하면 十八萬이라한다 一萬이라도 倉庫가서므로 十八萬이팔리면 얼마나 倉庫가 설지모른다 대단한것이다 이에繼續하야 新潮社에서는『世界文學全集』을 내엇다 얼마나팔릴고『日本文學全集』은 日本의 文學이므로 十八萬이나 팔리나 世界文學은 飜譯物이므로 그러케는 팔리지안흐리라고누구나 생각하얏다 그러나 廣告를 힘것하얏다 書籍廣告는 一割費用을 내는것이 普通인데 全集이므로 그러케 만히費用을 낼 必要도업스리라고 생각하고 잇섯스나 들은바에依하면『世界文學全集』最初의 豫算은 二十萬圓이엇다 대담한노릇을한다고 모두놀내엇다 그런데 廣告를하여본즉 작구 殺到하얏다 헤랄드에 一頁廣告를 내서 殺到한것과가티 작구 注文이잇섯다 그런데 新聞廣告는 말할것도업고 車後 친롱 展、電車中等 모든方法을 使用하얏다 작구하야본즉 작구 殺到하므로 더해라 더해라하야 마츰내三十五、六條이나 엇다 그랫드니 三十八萬口의 申込이왓다 相當한 盛況이다。

나의 友人中에도 그飜譯을 맛흔사람이잇섯는바 먼저돈을바다自動車를사고 집을짓고 別莊도 지은이가 一二人이나잇다 그리하야 드디어原稿를쓰게되매에는 돈이업서저서돈업시 原稿를쓰는사람도잇다 그만치 팔리엇다

그런데 그冊을 實際읽어보면 四六版의九포인트로 上下一段組로되어 一頁에 一千字가량이나된다 非常히 읽기어렵다 그리고 그씨워잇는것은 飜譯語이므로 지금에는『彼氏』『彼女』라는것이 이상할것이업시되엇스나 數年前에는『彼女』는 그럿트도시』라는것가티쓰면 좀처럼 一般에게는 읽키어려웟다 그러한것이 一冊六百頁七百頁每月작구 옴으로견딜수업다 아직 읽지못하엿는데 또 와서 最初自己가 읽을 생각으로 삿스나 이제 실증이낫다 『모와단말인가』하게된다 圓本이라는것은 豫約하면 最初證據金을 一圓내어 中途에 解約하면 一圓沒收되게되다 그一圓이 악가와서解約치못하게 되어섯스나 一圓쯤은 問題가안되다 每月와도 읽을수업다 읽지안호면 아무것도아니다 그래서 三冊가량 내때쯤부터 漸次 解約者가생기와 五冊 十冊을낼때쯤은、十二萬가량으로 되어버렷다 諸君 이는 무엇인가 十萬이나 팔릴가하고 생각하얏든것이 三十七、八萬이나 豫約을바닷다 그런데 三冊내고 五冊내고 十冊次가되니 十二萬으로 떠러진것은 무엇인가 萬若 眞實한 需要가 最初부터잇섯다면 三十八萬은 三十八萬에 머므럿슬것이다 廣告의힘으로 煽動하기때문에 거기에 虛僞의 需要가생긴것이다 읽어본즉 그런것은 쓸데업는것이라 하야 當然한곳에 떠러졋다 이即 需要가 廣告에依하야 一時膨脹되것이다 所謂 創造가 暫時後에 還元한것이다 熱病에걸렷다고도할수잇스나 그는 即廣告의 創造力이라고말하야도 조흘것이다

이러한例는 例하면 『와까모토』『카루피스』『스모카』『쵸코레-트』等에서 볼수잇다 勿論 이것들은 效力이업는것이 廣告로 팔리는것은아니다 確實히 商品도 조흐므로 팔리기는하나 萬若 이를 廣告하지안코 그대로두엇다면 一年三年間에 今日과如히 一時에 日本全國 朝鮮 滿洲 印度 中國 到處에 此等의商品이나가 天下를 席捲할수잇슬가 即 廣告는 當然 世間에 進出할수잇는 힘이 잇는것에 그힘을 三倍하고 五倍하고或은 十倍 二十倍하야 그效果를發揮시키는것이라는것을 나는 痛切히 늣기는바이다

—(繼續)—

長篇小說 어머니 【40】

李箕永 作　鄭玄雄 畫

第一、青孀篇

새사실 (三)

별안간 혜순이는 이불을 거더차고 이러나 안더니、푸러진 머리를 손으로 휘휘감어 되는대로 쪽을 쩌서 비녀를 꼿고는 자는 어린애를 저편 벽미트로 한갓지게 안어다 누인다。

그의 서드는 품、창규는 어떤 불안을 늑기엿다。그는 그동안에 좌석의 무료한것을 간신히 담배연기로 멕구고 잇섯다。그리고 그는 아무러치도 안흔듯이 왼지로 태연자약한 태도를 꾸미엿다。

그동안에 인숙이는 두사람의 눈치만 번갈어 보고잇섯다。혜순이가 무슨일을 차릴것가틈통작이 은근히 호기심이 나게한다。창규도 그눈치를 채고멀숙해안젓는팔이 고소해보이기도한다。별안간 혜순이는 쨍-하는 목소리로

『여보! 이리좀 도려안저요 나구말좀해봅시다』

하고창규의 여프로 대드럿다。

『말은 무슨말이야』

창규는 퉁명스럽게 부르지젓스나 눈으로는 연신 그리지말라고 애원을 하는 눈치를보인다。

인숙은 그꼴을보고 새삼스레 창규의 비굴한態度가 드러워보인다。그가 자기에게는 큰소리를 하든것이 저러케도 안해에게는 설설 기든 원인이든가? 호랑이인줄알고 잡어보니까 개드라고 창규야말로 호랑이가죽을 뒤여쓴 개와갓다!그런 사내에게 속은것이 다시금 분하기도 하엿다。

『여보 공연히 그러케 내숭스레 굴지말고 사내답게 양홍으로 말을 해요!여기 덕근어머니도 안지섯스니 말이지-당신이 하고 시픈짓을 내가 구지 만류하지는 안홀테니까…그러케 속일것업시 이자리에서 사실대로 말을 해요』

혜순은 숨이 차서 새근새근하며 다부지게 차림을 차린다

『아니 속이긴 무엇을 속인다고 그래…』

창규는 인숙이의 눈치를 슬적보며、가슴을 조리엿다。인숙이도 창규의 시선이 수상해서 마주 애를 태우고 잇섯다。두사람은 서로 비밀을 폭로식혓는가 십허서 의심을 더럭 내다。만일이때 혜순이가 남편의 소행(素行)을 미루어서 인숙의 태도와 아울러 보앗다면 그들의 심상치안흔 관계를 아러챗슬른지도 모른다。그러나 혜순은지금 그럴만한경황이 도무지업섯다。

『당신도 양심이 잇거든 그러지말고 진작 말을해요!나는 벌서부터 당신의 소위를 다알고 잇섯지만 일부러모르는척하고 내버려두고 보앗거던!……언제든지 당신이 토설하는때가 잇스리라고……그러나암만 기다려야당신은오늘날까지 아무말이 업지안소?……그래 나는 그동안에 남모르는 속을태워서 이러케 생병이 들게하지안헛수?당신은 내가 임신중이라、원기가업서서 그러다고 약을 먹으라햇지만……내가 병난 원인도 누구때문인데? 응!……』

『……』

어느듯 혜순이의 두빰에는 눈물이 소리업시 흘러 나렷다。두줄기의 눈물은 입안으로 흘러서、건건찝질한 맛이 혀스바닥으로 퍼진다。그러나 혜순이는 눈물을 씻슬 생각도 하지안코 그대로 내버려두엇다。

『기다리다못해서、내가 먼저내고도시펏지만 당신성미에 단둘이 잇다가 그런말을 햇다가는 그당상에 마저죽을테니까 겁이나서 할수가 잇서야지……아니 아주 죽여나주엇스면 오히려 시연하겟지만、죽이도안코 멍만들게해노코서 신음신음알타 죽으면 마저죽은줄도 모르고 당신네 조일만식히게……그래서 덕근어머니가올라오신게제에 증인으로세우고 말해보자고 내가언제부터 벼르고 잇섯기에……그러니 어서말을해요!당신이 기어히 그여자와 살구십다면 난 나대로 이집을 나갈테니까……』

『………!』

창규는 종시 대답이 업[illegible]꾸진 담배만 피우고잇다。

『금방 벙어리가 됏수?웨 대답이 업수。당신은 정녕생아페서 이런말을 들으니까 매우 창피한 생각이 들겟지만까노코보면 취불이나 창피할것도 업서요!창피한줄을 아는사람이 그럼 드러운짓을 할까!』

혜순이는 별안간 악이나서 이가 갈린다。그는 금시로 열병환자가 오한이 나듯이、살이 벌넝벌넝떨리고 소름이 쭉쭉!끼치엿다。

인숙이도 남모르게 증오의 감정으로 시선을 창규에게 쏘앗다。그는 다가티 창규에게 배반을 당하엿는데도 혜순이와가치 정면으로 싸우지못하는 자기의 그늘진신세가 애닯엇다。과부의 서름은 어듸서나 이와가티 남에게 억압만 바더야할것인가?생각하니 그는 다시금 흉중이 억색하엿다。

朝光六月號 十九日發賣

朝光六月號는여러분의참된待望가운데오는十九日發賣하게되엿습니다이번號는 白白敎事件正體暴露記 類似宗敎五團體解剖探訪記 思想保護觀察令 拳鬪玄海男遠征前記等滋味잇는記事外에小說時事論文詩歌史話隨筆趣味等一大豪華版입니다 이런內容의大雜誌를안보면損인것은두말할必要가업습니다 速히注文하십시요

定價 四十錢

京城府太平通一丁目一六
朝鮮日報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五番

女性 六月 特輯

二十世紀의奇蹟 盲聾啞의聖女 헬렌·켈러女史의生涯

장님이요、벙어리요、귀먹어리라는三重의不具者로서어떠케大學을마치고게다가世界各國語에通達하야講演으로著述로世界女性文化向上에偉功을세워어聖女라는稱號를밧게되엿나、피눈물나는그의生涯의記錄을읽으라

懸賞當選者發表 常識試驗問題로 지난번本誌四月號에 發表햇든것입니다

■金鷄納(隨筆)……白信愛 信愛氏의珠玉가튼隨筆입니다。

어머니의마음 (女性讀本) 金炯元

五月端午名節의由來 車相瓚

世界的女傑의懺悔記

◇印度女詩人 사로지니·나이두女史懺悔記
◇蘇聯女大使 코론타이女史懺悔記
◇英國前大臣 폰드필드女史懺悔記

詩歌
파랑새
金達鎭……
知己·懷人……碧城
여름들을가면……야극

制服을벗은新職業女性

▲戀愛도結婚도다실습니다……和信百貨店員 金順禮
▲나이팅겔이되고십흡니다……世專病院看護員 鄭恩珠
▲사랑과善으로싸호렵니다……中央幼稚園保姆 洪福點
▲朝鮮美人이업는原因은……女王美容院美容師 李寶培
▲엉뚱한짓이라꾸지람마세요……朝陽幼稚園保姆 尹玉順
▲아직은數字만練習합니다……漢城銀行事務員 沈在順

發賣中

映畫와生活 林蔚川
十年秘密吐說 申鼎言
兒童과玩具 徐恩淑

家庭讀本
◇初夏의婦人衛生……張文卿
◇初夏의野菜料理……金惠淑
◇婦人女學生外出服……任貞赫
◇얼굴히게하는秘法……吳淑根
◇핸드빽만드는妙法……金光芝

音樂鑑賞講座 金管

現代文明과女性 玄仁圭

六月創作特輯
곳으스피는庭園(終篇) 李泰俊
短篇小說 港口로가는길……姜鷺鄕
中篇小說 停車場近處……蔡萬植
短篇小說 사월이……盧天命

家庭太平記 (宋今璇氏宅)

畫報
新綠·樵童·波紋은퍼지고。빨래는散策겸。古宮에빗긴여름。뒤진季節·나룻배。郊外로·말이업시도조흔瞬間

樂家 鄭勳謨論 (女流人物評) 李善熙

蔣介石과宋美齡의로맨스 又夢生

京城各女學校女先生評判記 淑明篇(1)

■알어둡시다
■內外珍聞
■女性界消息
■挿畫·컷……鄭玄雄
■表紙畫……安夕影

定價二十錢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